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시민공간 확대 방안'

10~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시민공간과 인권도시' 국내외 인권 활동가·국제기구 관계자 등 600명 참석

세계 각국의 인권전문가들이 광주에 모여 축소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상징 '시민공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광주시는 10~11일 이틀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권도시포럼에는 국내외 인권 활동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시민공간의 현실과 이에 따른 인권문제 등을 심도있게 토론한다.

시민공간은 개인과 집단이 사회문제에 대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건강한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가 '시민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전체회의에서는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위브케 윈터 독일 뉘른베르크시 인권담당관이 세계 곳곳에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시민공간을 둘러싼 인권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인권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인 시민공간의 형성, 보호, 확대 방안, 모범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회의는 어린이·청소년, 여성, 시민사회 활성화, 장애, 이주 등 5개 세부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지역적 이행을 위

한 지방정부의 유연인권제도 참여 촉진' 문제가 다뤄진다.

이밖에 광주시민인권실천단 워크숍,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광주·전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회의도 열린다.

올해는 필리핀 인권 관련 공무원 및 인권활동가 15명이 포럼에 참석해 광주시 인권정책과 포럼을 벤치마킹한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포럼은 시민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시대에 국제사회·인권단체와 연대·협력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광주본부 출범

"우리 아이 우리 미래" ...경제·금융·종교·학계 등 총망라

광주상공회의소는 7일 오후 KBS 광주방송총국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 광주본부' 출범식을 갖고 금융·종교·학계·방송계 등과 함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 광주본부'는 광주 경제계와 금융계, 종교계, 학계, 방송계 등 민간의 주요 부문이 총망라돼 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옥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설경완 KBS 광주방송총국

장 각계 대표인사로서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날 공동대표들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의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함께 발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저출생 극복 광주본부는 이날 출범과 공동선언을 계기로 주요 사업들의 실행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전남도 끈질긴 설득 통했다

"벼벌구도 농업재해"

전남도가 올해 벼벌구 피해가 과거와 달리 기하급수로 피해가 늘고 폭우 피해까지 겹쳐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한 결과 결국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질문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벼벌구 피해를 재해로 정식 인정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첨단대상파크골프장 개장식 7일 오후 북구 첨단대상파크골프장 개장식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군공항, 무안이 받느냐의 문제...광주 시민단체 공감"

"광주시 '연말 시한' 부적절...진지한 자세, 진솔한 대화 우선"

김영록 지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 "중요한 것은 군공항을 무안군이 받느냐"라며 광주시에 진지한 자세와 진솔한 대화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전남 광주시민단체가 내놓은 연대성명에 격하게 공감했고, 광주시가 언급한 '연말 시한'이나 소위 'B플랜' 등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남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내놓은 성명을 언급한 뒤 "전남도가 바라는 바와 근접한 것으로, (공항 이슈 해결에) 매우 의미가 있다"며 조목조목 공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보내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남은 문제는 군공항을 무안(전남)이 확실하게 받느냐. 본질적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어 대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광주지역 20여개 시민단체 진단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군공항이 "마냥 환영할 만한 시설은 아니다"는 시민단체의 솔직한 고백에는 '감사의 뜻'까지 전했다.

광주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소음이나 군부대 주둔에 따른 재산상 제약 등 군공항이 마냥 환영할 만한 시

설이 아닌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입장 역시 중요하다"며 "공동의 큰 이익과 두 지자체의 작은 이익 사이에서 후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를 "(무안 군민들을) 이해해준 부분으로 의미가 크다"고 꼭 짚어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 입장에서 무안으로 군공항 받아야 하는 건 인정한다. 다만, 군민들로 하여금 환영할 만한 시설이 아니라면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광주시가 진솔하고 진지하게 군민들을 설득해 달라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호 기자

민주의 도시 광주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하자

안평환 광주시의원 토론회

광주지역 정치권이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평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이 7일 각계의 뜻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당위성과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안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장우권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추진위원장과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장 위원장은 "현재 국회도서관의 장서와 기록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존소공간 대응 능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는 물론 광주

관을 신설했을 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국회도서관 부산관이 2022년 개관해 부산, 울산, 경남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주관을 유치하면 민·군·민·평화의 도시 광주를 특화한 연구도서관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박성우 광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용민 송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 김희숙 광주삼육초 교사, 김동수 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심창욱 광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조선주 기자

여성취·창업 지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광주시가 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광주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창업 직업교육훈련과정 공모사업'에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공간인테리어 창업과정이 선정돼 국비 42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기존에 확보한 7억 2400만원에 4200만원을 추가해 올해 총 7억 6600만원의 국비로 총 29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새로 선정된 공간인테리어 창업

과정은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된다.

교육은 도배기능사 자격증 취득, 장판·인테리어 필름 시공 등 업무를 위한 현장 실무교육으로 구성됐으며 23일까지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또 광주시는 기존 확보예산으로 헛-GPT 활용 마케팅 현장실무과정, 미래유망직종인 광주형 인공지능(AI)융합교육전문가, 스마트팩토리 기반 품질생산관리사무원, 병원 조무사 현장실무, 호텔객실관리자 양성과정 등 28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진도아리랑물
www.jindoarirangmall.com

진도아리랑물
을 검색하세요!
고객센터
061.542.9631

초대합니다

오곡백과 풍성한 멋진 가을날
면민이 함께 어울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정을 느낄 수 있는
「제12회 남면민의 날 한마음 축제」 및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남면민의날 추진 위원장 공 정 호 배상
남 면 장 김 영 중

* 일 시 : 2024. 10. 12.(토) 10:00
※ 기념식 : 11:00

* 장 소 : 남중학교 운동장(남면 황토단감로 10)

* 주요행사 : 기념식, 민속체육행사, 노래자랑 등

* 주최/주관 : 남면체육회 / 남면민의 날 추진위원회

◆ 후원계좌 농협 351-1335-8412-23
남면민의 날 추진위원회

안도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즐기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해수·애조류머드 등을 활용한
16개 테라피실 운영

프로그램
기본 : 1층 5개 프로그램
프리미엄 : 1층 5개+2층 3개 프로그램

이용요금
기본 : 성인 36,000원 소인 26,000원
프리미엄 : 성인 125,000원 소인 80,000원

문의 (061)550-7676, 7675
주소 전남 안도군 신지면 해양치유길 100
예약 네이버, 다음 등에서 안도해양치유 검색